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의 특징

장 지 연*

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빈곤상태에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에는 선진국에서도 노인들이 빈곤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노인들이 가장 큰 빈곤집단을 형성하는 단계는 벗어났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Smeeding et al, 2001; Williamson & Smeeding, 2004). 그러면서 동시에 연금수급권 발생연령과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연령이 동의어가 되다시피 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제도의 특성은 노년기 노동공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았는데, 한국은 아직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은 아직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퇴직연금(기업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들은 이제 막 형태를 갖추어가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한국 고령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private income transfer)이 중요한 소득원(income sources)이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최현수 · 류연규, 2003; 김수완 · 조유미, 2005).

이 글은 한국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의 특징을 다른 나라와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대상 국가는 유럽 9개국과 미국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에 기본조사를 마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자료를 사용한다.[1] 비교대상 국가의 경우는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chang@kli.re.kr).

1) 자료 소개는 노동연구원 KLoSA 웹사이트 참조.

〈표 1〉 국가별 상대빈곤율 비교

	연령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한국
개인	전 체	6.0	4.4	5.5	11.1	13.2	4.3	6.2	2.2	17.2	11.4
	0~17세	4.0	3.6	5.4	16.9	17.8	5.5	3.3	0.9	22.8	9.7
	18~64세	5.7	4.3	5.5	8.7	11.8	4.3	6.0	2.5	13.7	9.3
	65세 이상	9.3	6.0	5.4	12.0	13.2	2.9	11.1	2.8	22.1	34.2
가구	65~69세	7.8			17.0			6.6	2.2	24.7	30.3

주 : 개인빈곤은 1998년 자료, 한국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자료.
가구빈곤은 가구주의 연령이 65~69세인 가구의 빈곤율. 자료는 LIS 자료로 독일 1994, 스웨덴 1995, 노르웨이 1994, 영국 1995, 미국 1997, 한국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자료.
자료 : 개인빈곤율은 Dang et al(2006)에서 인용, 단, 한국은 최현수·류연규(2003)에서 인용.
가구빈곤율은 Rein et al(2004), 김수완 외(2005)에서 재인용.

and Retirement in Europe)와 미국의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을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공적연금제도가 확립된 연한이 짧기 때문에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소득원의 특징이 선진국과는 매우 다르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많은 한계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진국들 간의 차이점에 주목한다면 우리나라 고령자 소득보장정책에 주는 함의를 발견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한국 노인의 빈곤수준 : 기존 연구의 결과

본 장에서는 한국 노인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정도의 빈곤상태에 있는지 살펴본다. 노인들이 얼마나 빈곤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있다. 절대빈곤율은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을 일컫는데 비해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해외에서는 상대빈곤율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는 상대빈곤율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빈곤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고령화연구패널'과 같이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결과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지표를 사용하여 한국 노인의 빈곤수준을 가늠해 본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고령자는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빈곤가구에 속해있는 비율이 34%

를 넘어선다. 유럽에서 고령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영국이나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2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빈곤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사회의 빈곤율로 볼 때, 한국은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 약간 낮고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어린이나 경제활동 연령대의 빈곤율은 이들 국가보다 낮은 반면, 고령자의 빈곤율은 절대적으로 높다. 노후소득보장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Ⅲ. 고령자의 소득수준

1. 소득측정의 고려사항

빈곤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가구(household)'를 빈곤여부를 측정하는 단위로 삼고 있다. 가구 내에서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 모든 가구원에게 균등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는 소비의 단위이며 경제적 웰빙을 공유하는 단위임에 틀림없다. 노인의 경제적 형편과 소득수준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흔히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할 뿐, 노인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구원 중에서 누구의 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는 고령자의 경제적 형편을 연구함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한국은 노인의 상당수가 성인자녀와 동거한다. 이 때문에 노인의 경제적 형편은 자신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아니라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소득원에 대한 분석에서도 노인가구의 상당수는 근로소득에의 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노인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이것은 국제비교연구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한국은 높다는 사실을 통제하지 않고 소득수준이나 소득원을 비교하는 경우, 가구원수를 가지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방향, 그리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편의(bias)를 일으키게 된다. 둘째, 고령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이나 소득원은 가구단위에서 결정될지, 개인단위에서 결정될지 분명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고령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은 없는데 취업한 성인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노

〈표 2〉 각국 고령화연구자료별 소득조사 방식

	가구소득 조사 방식
유럽(SHARE)	부부공동/각각(근로, 공적이전, 개인연금, 자산, 사적이전)+다른 가구원 기여
미국(HRS)	부부각각(근로, 공적이전, 개인연금)+부부공동(자산)
한국 1(KloSA)	부부각각(근로, 공적이전, 개인연금, 자산, 사적이전)
한국 2(KloSA)	다른 가구원의 기여를 포함한 총소득

주 : SHARE는 응답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부부공동과 각각 조사를 선택하게 함.

동공급에 나서겠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지 선험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가 가구단위의 소득만을 제공한다면 이를 연구해 볼 수 없게 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과 자산을 개인단위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가구소득을 측정함에 있어서 노인 개인(또는 부부)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포를 살펴보면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 전체 가구소득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편이의 정도도 측정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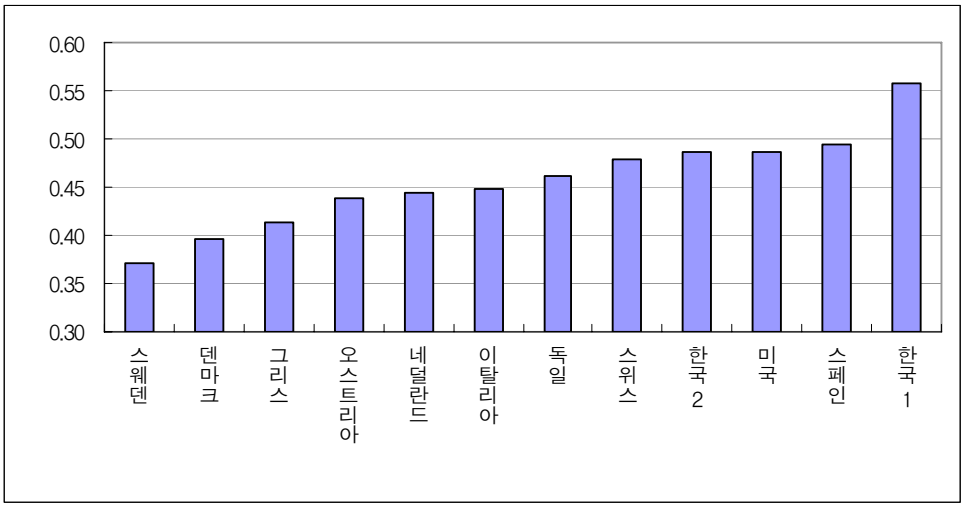
또한 가구를 단위로 하는 분석과 개인을 단위로 하는 분석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고자 한다. 소득불평등도나 소득원(sources)의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가구단위의 소득을 사용하며, 연령에 따른 소득수준의 감소 정도에 관한 논의에서는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개인자료에 연결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활용한 각 데이터는 가구소득 조사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표 2>와 같은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음을 밝힌다.

2. 소득수준의 불균등 분포

노인가구(또는 노인 개인)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낮아서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노인가구 소득수준의 상대적 분포는 어떠한가? 중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2] 사회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과 덴마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고령자들 간에 소득불평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륙유럽국가와 남유럽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국은 가구총소득(소득 2)으로 비교하더라도 이들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노인부부의 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한 것(소득 1)을 가지고 계산한 지니계수는 이보다 더 불균등한 소득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 참조).

2) 표본의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균등화하였다.

〔그림 1〕 50세 이상 인구의 가구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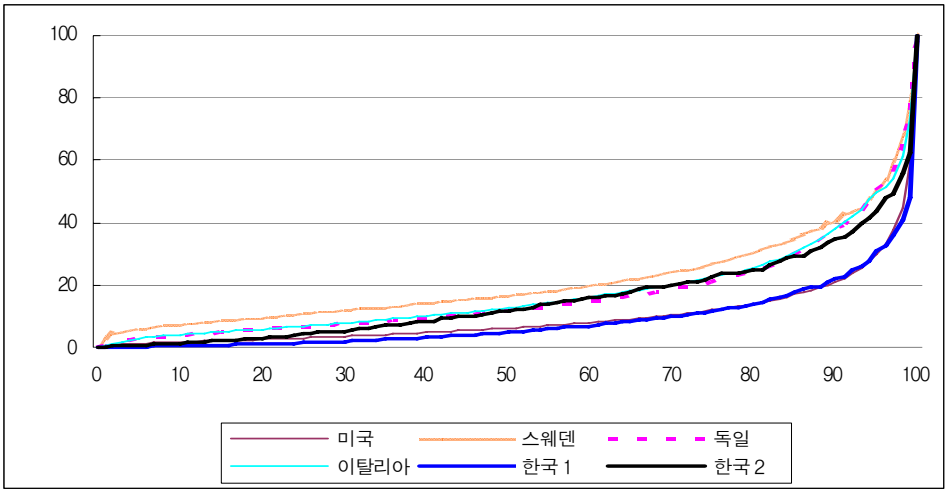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가구소득의 누적분포를 보더라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5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의 전체 소득의 누적분포 그래프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유사한 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고령자 부부 중심의 소득만을 가지고 보면 한국고령자가구의 소득분포는 미국과 함께 가장 오른편으로 치우친 그래프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노인들 자신의 소득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노인이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을 노인가구의 소득이라고 보면 그 불균등의 정도는 완화된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노인들이 서구처럼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였다면 노인빈곤의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자녀와의 동거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하여 노인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3. 고령자 연령별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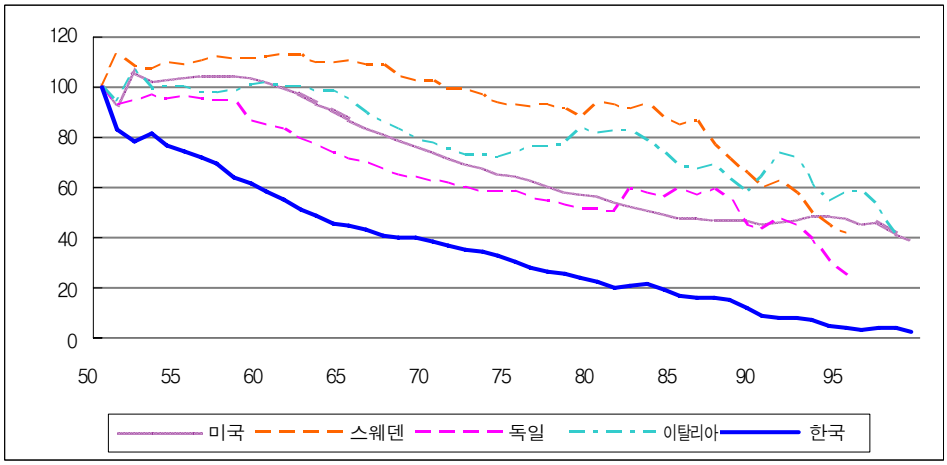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의 현실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나타날 것이고 급속하게 소득이 감소하는 시점도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은 50세 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의 가구소득을 개인자료에 연결시킨 후, 개인의 연령별 평균 소득을 50세 인구의 소득을 100으로 하여 상대적인 수준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연령에 따른 소득감소의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그림 2〕 주요국의 가구소득 누적분포



주 : 한국 1은 노인부부소득, 한국 2는 가구전체소득.

〔그림 3〕 주요국의 연령별 소득수준



주 : 50세 시점을 100으로 본 상대적 수준임.

우리나라 고령자는 50세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수준이 하락할 뿐 아니라 그 하락의 기울기도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비가 되는 국가는 스웨덴인데, 65세 정도까지 소득이 거의 감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감소하는 속도도 매우 완만하다. 독일도 65세 이전에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다가 65세부터 뚜렷하게 감소한다.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에서도 본격적인 소득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60세 이후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일단 소득감소가 시작된 이후에는 소득이 빠르게 감소한다.

Ⅳ. 고령자 소득구성의 특성

1. 소득구성의 측정방법

소득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①가구소득의 구성비율을 구한 후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즉 비율의 평균(mean of the share) 방법과 ②전체 소득에서 각 부문의 구성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즉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mean share of aggregate income) 방식이다. 전자는 평균적인 가구의 상대적인 소득구성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반면, 후자는 집단들의 특정 소득원 의존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한편 비율의 평균 방식은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국가이전소득에 덜 의존하게 되는데, 비율의 평균 방식은 전체 소득에 대한 기여분의 크기에 대한 가중치 없이 모든 가구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Rein et al, 2004, 김수완・조유미, 200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비율의 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제시한다.

2. 소득구성의 국가간 비교

평균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나라 50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약 33%의 고령자 근로소득과 19%의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11%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또다른 33%는 함께 사는 다른 가구원의 기여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러한 소득구성은 공적연금체계가 자리잡힌 선진국의 소득구성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이 모두 부족한 한국은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그리고 다른 가구원의 기여분으로 노후의 경제생활이 영위되는 형편에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표 3>은 고령자 가구의 소득구성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주요국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그러면서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국가는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형태이다. 이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한편 미국과 네덜란드, 스위스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북유럽 2개국보다는 낮지만 서유럽이나 남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공적이전소득의 기여분은 30%대로 비교적 낮은 편인 대신, 개인연금의 비중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면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서유럽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고령자가구 소득원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유형의 국가군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노후소득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①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국가군과 ②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합이 우세한 국가, 그리고 ③ 거의 전적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국가가 대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대상 인구를 50~64세와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원 구성의 특징이 좀더 드러난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50~64세 연령대의 경우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으면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반면,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대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50~64세 때에는 낮게 나타나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다른 남·서유럽국가 수준으로 높아진다. 즉, 북유럽 2개 국가의 경우 전체 고령자 가구의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고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65세까지는 조기은퇴 없이 근로소득에 의존하다가 65세 이후에는 공적연금에의 의존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서유럽 국가들은 50대부터 공적연금에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와 스위스, 미국은 65세 이후에도 공적연금에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Ⅴ. 요약 및 함의

1988년에 공적연금체계가 도입되었으므로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는 없으며, 조기노령연금이나 특례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를 합하여 60세 이상 인구의 약 17% 정도가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다른 사회보장 소득을 수급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약 27%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윤석명 외, 2003; 김수완 외, 2005; 김용하, 2005). 공적연금체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한국의 고령자는 선진국의 고령자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 고령자는 매우 높은 빈곤율을 나타낸다. 아동이나 경제활동 연령대와 비교해서도 고령자의 빈곤율이 현저하게 높은 연령계층별 빈곤구조도 선진국과는 대비되는 특징이다. 둘째, 고령자간 소득의 불균등 분포의 정도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심하다. 단순히 가구총소득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보다 젊은 가족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노인 자신의 소득만을 가지고 산출한 지니계수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인들의 경

〈표 3〉 평균적인 고령자 가구의 소득구성(Mean of the share)

전체 (50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다른 가구원의 기여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개인연금	기타	
스웨덴	34.4	2.2	47.2	0.3	8.9	0.1	6.9
덴마크	38.5	5.4	42.0	0.6	9.2	0.2	4.1
네덜란드	30.7	4.4	35.9	0.2	18.3	0.2	10.2
스위스	33.5	6.1	34.1	0.3	12.0	0.9	13.0
미국	29.5	5.5	39.7	1.1	11.7	2.3	10.3
오스트리아	17.6	2.8	60.1	0.7	4.1	0.9	13.9
독일	28.1	4.7	50.2	0.4	4.5	0.1	11.9
스페인	25.5	2.9	58.4	1.1	1.1	0.2	10.9
이탈리아	21.1	2.6	56.6	0.8	3.3	0.1	15.7
그리스	28.0	5.9	59.1	2.0	0.6	0.1	4.3
한국	32.6	3.6	10.5	19.4	0.3	0.5	33.1

50~64세	고령자의 소득						다른 가구원의 기여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개인연금	기타	
스웨덴	61.7	2.3	16.8	0.4	11.0	0.1	7.7
덴마크	62.0	4.5	24.5	0.9	4.8	0.3	3.0
네덜란드	49.6	5.7	21.1	0.3	11.3	0.3	11.8
스위스	55.2	6.2	13.6	0.6	8.3	1.6	14.6
미국	57.9	3.9	18.2	1.0	7.0	2.6	9.4
오스트리아	28.5	3.1	44.5	0.7	3.9	0.9	18.5
독일	50.2	4.8	27.6	0.6	2.8	0.2	13.8
스페인	49.0	3.2	32.9	1.1	1.2	0.3	12.4
이탈리아	36.4	3.1	37.8	1.3	2.5	0.1	18.8
그리스	51.3	8.1	32.6	2.2	0.5	0.2	5.1
한국	50.4	3.6	6.8	9.7	0.4	0.5	28.7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다른 가구원의 기여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개인연금	기타	
스웨덴	5.5	2.1	80.1	0.2	7.3	0.0	4.7
덴마크	5.8	6.5	67.1	0.2	15.7	0.1	4.7
네덜란드	4.5	3.4	55.8	0.1	28.3	0.2	7.6
스위스	5.4	6.1	61.0	0.1	17.7	0.3	9.4
미국	11.0	7.1	54.0	0.8	16.1	2.4	8.6
오스트리아	2.9	2.5	80.9	0.7	4.5	1.1	7.5
독일	5.7	4.7	75.4	0.3	6.5	0.1	7.4
스페인	5.1	2.8	80.5	1.0	1.0	0.2	9.4
이탈리아	4.6	2.2	76.2	0.2	4.0	0.1	12.7
그리스	5.1	4.1	84.6	2.0	0.8	0.1	3.4
한국	22.2	4.2	14.1	28.6	0.3	0.5	30.1

제적 불평등은 그나마 성인자녀와의 동거로 인하여 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연로해 감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기울기도 가파르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공적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선진국과는 달리 근로소득에의 의존이 매우 큰 소득구성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한국 고령자 가족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근로소득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공백은 다른 가구원의 기여분이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나 가족의 사적이전으로 메워지고 있다.

선진국 고령자 가구의 소득구성도 국가별로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노후소득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①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국가군과 ②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합이 우세한 국가, 그리고 ③ 거의 전적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국가가 대별된다. KLI

<참고문헌>

김수완 · 조유미(2005),「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국민연금연구원 Working Paper 2005. 01.

김수완 · 김순옥 · 안상훈(2005),『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용하(2005),「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와 개선방안」,『사회과학연구』(10)3.

윤석명 · 이정우 · 김대철(2003),『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최현수 · 류연규(2003),「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한국노년학』23(3).

Borsch Supan, A. et al.(2005),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Mannheim Research Institute for the Economics of Ageing.

Dang, T., H. Immervoll, D. Mantovani, K. Orsini, & H. Sutherland(2006), "An Age Perspective on Economic Well Being and Social Protection in Nine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34.

Marmot, M. et al.(2004), *Health, Wealth and Lifestyles of the Older Population in England: The 2002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Smeeding, T.(2001), "Income Maintenance in Olde age: What can be Learned from Cross

National Comparisons" LIS Working Paper No.263.

Smeeding, T. M., Rainwater, L., & G. Burtless(2001), "US Poverty in a Cross National Context" in Danxiger(eds.), *Understanding Poverty,*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iamson, J. & T. Smeeding(2004), "Slinding into Poverty? Cross National patterns of Income Source Change and Income Decay in old Age" CRR Working Paper 2004. 25.